

# 북스

Books

## 경주 포석정에 담긴 물리학의 비밀

### 과학 삼국유사·과학 삼국사기

이종호 지음



지난해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신라의 포석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주 로켓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목표 온도까지 순간적으로 올릴 때 일종의 소용돌이인 '회돌이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나로호는 '회돌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반면 포석정은 '회돌이 현상'이 일어나도록 설계했다. 황룡사 탑에 썼다. 처음으로 누각(물시계)을 만들었다"고 썼다.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삼국시대 이래 전래된 우리 고유 기술에 역대 중국 물시계와 이슬람의 자동 시보장치 등을 가미했다는 것이다.

지난 1973년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보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5~6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칼의 무늬들은 그리스 소용돌이 문양이며 로마의 세공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황금보검의 제작지는 지금의 체코, 폴란드, 러시아 지방이다. 이들 지역에서 경주까지는 8000km 떨어져 있다. 어떻게 이 칼이 경주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

삼국사기에는 "17년 3월 지진이 있었다. 여름 6월



경주 포석정은 물이 흐르다 특정 위치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회돌이 현상'이 일어나도록 설계됐다. (광주일보 자료)

황룡사 탑에 썼다. 처음으로 누각(물시계)을 만들었다"고 썼다.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삼국시대 이래 전래된 우리 고유 기술에 역대 중국 물시계와 이슬람의 자동 시보장치 등을 가미했다는 것이다.

지난 1973년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보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5~6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칼의 무늬들은 그리스 소용돌이 문양이며 로마의 세공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황금보검의 제작지는 지금의 체코, 폴란드, 러시아 지방이다. 이들 지역에서 경주까지는 8000km 떨어져 있다. 어떻게 이 칼이 경주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에 대해 "중국과 혈투를 벌이던 훈족의 지배자 일부가 북방 초원길을 통해 동쪽으로 왔고, 신라(가야 포함)의 지배자가 됐거나 신라의 지배자에게 황금보검을 전해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라의 사신이 초원길을 통해 훈족의 지배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마무사, 역법, 편두와 금관, 천마도,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문기록, 나침반 등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유물과 기록을 통해 엿보는 흥미로운 과학이야기가 풍부하다.

〈동아시아·각권 1만6000원 / 오광북기자 kroh@kwangju.co.kr〉

### 서양화가 바라 본 민족 시인 백석의 삶

우리 민족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백석(1912~1995년)을 다룬 '백석 평전-외롭고 높고 쓸쓸한'이 나왔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절, 백석의 시를 만나면서 예술세계에 변혁을 겪었다고 말하는 서양화가 김영진씨는 백석과 관련된 주요경점들을 충분한 자료조사와 문학전문가 이상의 명확한 논리를 통해 분석, 그의 예술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복원해내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저자가 뽑은 백석의 대표시 13편과 1987년 해금 이후 쏟아져 나온 백석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 단행본 가운데서 참고할만한 도서를 첨부했다. <미디어북스·1만65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철학자의 서재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한국의 철학자 100명이 오늘날 사는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 107권을 뽑아 추천한 책과 그 서평을 담은 '철학자의 서재'가 출간됐다. 책읽기와 글쓰기, 철학적 사유에 관한 통합적인 안내서를 표방한 책은 지난 2년간(2008년 9월~2010년 12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되었던 시리즈를 엮은 것이다.

20대 대학원생에서 30~40대의 연구원 및 강사, 50대의 교수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철학자들은 "철학적 사고는 대안적 상상력이 뒷받침돼야 깊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책을 선택했다.

2500년 전의 플라톤과 공자에서, 현대의 자크 아

### 철학자 100명이 추천한 '철학적 사유' 안내서

탈리아와 수전 손택, 김훈과 엄기호 등에 이르기까지 당대 현실에 대해 이들이 던진 진지한 주제에 대한 화답과 성찰을 모았다.

책과 서평은 각각 자아찾기, 반성, 비판, 전복, 성찰, 소통, 연대 등의 키워드에 따라 분류, 수록됐다. '자아찾기'에서는 진부엔양의 '진과 대니', 서경식의 '소년의 눈물', 김세서리아의 '동양 여성철학 에세이' 등이 추천됐다. '진과 대니'를 추천한 이정은 연세대 외래교수는 "다문화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진의 모습을 보면서 21세기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조명해볼 것"을 제안했다.

안은수의 '행복한 인생', 임석재의 '건축, 우리의 자화상', 인권운동사랑방의 '뚝뚝뚝 인권 찾기', 울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강준만의 '신영복 함께 읽기' 등은 '반성'이란 키워드로 다뤄졌다. 송중서 민족화학연구원 상임연구원은 '행복한 인생'에 대해 "자신만의 그물망에 걸린 세상을 통해 오

늘남의 도와 덕을 이야기한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비판' 장에서는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 존 벨라미 포스터의 '생태계의 파과자 자본주의', 한스 피터 마르틴의 '세계화의 뒷', 엘마 알트퍼더의 '자본주의의 종말' 등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한 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외에도 '무엇으로 철학을 할 것인가' '새로운 세계는 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철학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고리타분하고 사변적일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권하는 책의 대부분은 우리 시대를 사유하고, 성찰·비판하며 연대를 꿈꾸고 상상하기에 좋은 책들이었다. 청년들을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겠다.

〈알렘·2만30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책



▲눈먼 암살자 1, 2=캐나다 문학을 이끄는 여성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72)의 2000년 작품. 팔십 대의 화자 아이리스가 죽음을 앞두고 쓰는 회고록과 스물다섯 살에 사망한 그녀의 여동생 로라의 이름으로 출간된 소설 '눈먼 암살자', 그리고 '눈먼 암살자' 속 남자가 여자에게 들려주는 공상 과학 소설 등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구조로 화려한 역사의 이면에서 희생된 자매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다. <민음사·각권 1만3500원〉



▲관찰야 3반='오체불만족'의 작가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10년 만에 낸 소설. 초등학교 선생님 시절의 경험을 그대로 살려낸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신기한 기계를 탄 주인공 '아카오' 선생님과 시끄러운 사고동치지만 해맑은 5학년3반 아이들이 펼치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이야기는 감동을 선사한다. <창해·1만1200원〉



▲출세만세=지난해 방송된 SBS스페셜 '출세만세'의 남규홍 PD가 방송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엮었다. '출세만세'는 한국인들의 출세를 향한 욕망과 인식을 상황극 형식으로 풀어내 화제를 모았다. 4부로 구성된 책에서는 한국인에게 출세는 어떤 의미이며 왜 갈망하는지 출세의 비법은 무엇인지, 출세한 자와 못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지 하는 질문을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도모북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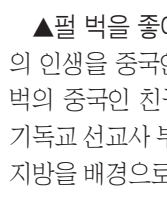
▲볼썽 너의 기억이='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등의 시집으로 사랑받아 온 이정하 작가의 포토 에세이. 한층 더 섬세해진 시선으로 삶과 사랑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펼쳐내고 있으며,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토닥여주고 있다. 사진작가 김기환과 한정선의 감각적인 컬러사진을 덧붙여 작가 특유의 시적 문체의 감성을 살려주고 있다. <책이있는마음·1만3800원〉



▲세익스피어, 신을 흔들다=세익스피어의 이름을 '성부'(pere)를 '흔들다'(shakes)라는 뜻으로 새기고, 그의 묘비명 역시 우상에 탄압하는 교회를 질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혁명적 세익스피어라는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재해석했다. 공인회계사인 저자 오순정씨는 '베니스의 상인' '오셀로' '맥베스' 등을 법과 정의와 변혁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낸다. <매직하우스·1만5000원〉



▲커피의 정치학-커피의 역사와 형태를 설명하고 커피에 담긴 정치사를 담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한 무역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 경제시스템을 재구성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북·1만8000원〉



▲필 벉을 좋아하나요?=노벨문학상을 받은 '대지'의 작가 필 벉의 인생을 중국인의 관점에서 그린 안치 민의 소설. 작가가 실제 필 벉의 중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조한 인물인 윌로우와 기독교 선교사 부부의 딸이었던 필 벉의 우정을 19세기 말 중국 남부 지방을 배경으로 담았다. <밀리언하우스·1만2000원〉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SINCE 1982**

[www.kjhr.com](http://www.kjhr.com)

# 국제보청기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225-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